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25.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보도자료

일자 2025년 12월 11일(목)

발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전화 02-880-5009

시점 12월 11일(목) 18시부터 보도

##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선발 결과

1

서울대학교는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에서 총 2,204명을 선발하였다. 전형별로 지역균형전형 508명, 일반전형 1,518명,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78명을 선발하였다.

[표 1] 수시모집 선발인원 현황(단위: 명)\*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1단계 선발인원	선발인원	
2026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9	2,419	1,448	508
		일반전형	1,515	13,695	3,090	1,518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3	1,816	386	178
계		2,207	17,930	4,924	2,204	
2025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6	2,486	1,446	501
		일반전형	1,499	15,316	3,063	1,503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1	2,018	378	176
계		2,186	19,820	4,887	2,180	
2024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6	2,513	1,463	501
		일반전형	1,492	15,020	3,043	1,501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3	1,746	384	179
계		2,181	19,279	4,890	2,181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

\*\* [정원 내]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정원 외]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 보도자료

일자 2025년 9월 29일(월)

발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전화 02-880-6974

시점 9월 29일(월)부터 보도

##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발표

서울대학교는 입학전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며, 공공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학년도에도 학교교육 중심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2028학년도 전형에서 202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8학년도에는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합니다.

둘째,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일부 지원자격을 제한합니다(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불가). 또한 고교별 추천인원을 3명으로 확대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활용하고,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1단계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일자 2025년 12월 11일(목)

발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전화 02-880-5009

시점 12월 11일(목) 18시부터 보도

##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선발 결과

1

서울대학교는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에서 총 2,204명을 선발하였다. 전형별로 지역균형전형 508명, 일반전형 1,518명,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78명을 선발하였다.

[표 1] 수시모집 선발인원 현황(단위: 명)\*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1단계 선발인원	선발인원	
2026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9	2,419	1,448	508
		일반전형	1,515	13,695	3,090	1,518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3	1,816	386	178
계		2,207	17,930	4,924	2,204	
2025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6	2,486	1,446	501
		일반전형	1,499	15,316	3,063	1,503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1	2,018	378	176
계		2,186	19,820	4,887	2,180	
2024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	506	2,513	1,463	501
		일반전형	1,492	15,020	3,043	1,501
	정원 내/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83	1,746	384	179
계		2,181	19,279	4,890	2,181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

\*\* [정원 내]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정원 외]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수시모집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수시모집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6	지역균형	지원	393	16.2	612	25.3	1,270	52.5	144	6.0
		합격	110	21.7	108	21.3	265	52.2	25	4.9
	일반전형	지원	4,331	32.3	3,089	23.0	5,510	41.1	484	3.6
		합격	510	33.8	453	30.1	508	33.7	36	2.4
	기회균형 (사회통합)	지원	170	9.5	217	12.2	840	47.1	555	31.1
		합격	5	2.8	12	6.7	95	53.4	66	37.1
계	지원	4,894	27.8	3,918	22.2	7,620	43.3	1,183	6.7	
	합격	625	28.5	573	26.1	868	39.6	127	5.8	
2025	지역균형	지원	399	16.0	635	25.5	1,307	52.6	145	5.8
		합격	118	23.6	119	23.8	252	50.3	12	2.4
	일반전형	지원	4,922	32.8	3,425	22.8	6,129	40.9	519	3.5
		합격	504	33.8	438	29.4	514	34.5	35	2.3
	기회균형 (사회통합)	지원	196	9.9	207	10.4	949	47.8	634	31.9
		합격	11	6.3	16	9.1	94	53.4	55	31.3
계	지원	5,517	28.3	4,267	21.9	8,385	43.1	1,298	6.7	
	합격	633	29.2	573	26.4	860	39.7	102	4.7	
2024	지역균형	지원	389	15.5	648	25.8	1,326	52.8	150	6.0
		합격	107	21.4	118	23.6	257	51.3	19	3.8
	일반전형	지원	4,836	32.9	3,292	22.4	6,020	41.0	547	3.7
		합격	510	34.2	453	30.3	484	32.4	46	3.1
	기회균형 (사회통합)	지원	195	11.3	216	12.6	791	46.0	517	30.1
		합격	13	7.3	14	7.8	84	46.9	68	38.0
계	지원	5,420	28.6	4,156	22.0	8,137	43.0	1,214	6.4	
	합격	630	29.0	585	26.9	825	38.0	133	6.1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 (검정고시 및 외국소재고 제외)

## 3

수시모집에서 합격생을 1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총 760개 고교이며,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이 없었던 108개 일반고(자공고 포함)에서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이 중에는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이 없었던 9개 군 지역 소재 일반고(자공고 포함)도 포함되어 있다.  
 수시모집 전형별로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수시모집 전형별 합격생 배출 고교 수(단위: 개교)\*

구분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전체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2026학년도	1,373	429	1,490	379	742	137	1,798	760
2025학년도	1,388	442	1,536	384	804	135	1,815	752
2024학년도	1,412	441	1,552	387	794	126	1,819	765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검정고시 및 외국소재고 제외)

수시모집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수시모집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단위: 명/%)\*

구분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체육고	특성학교	검정고시	기타 (외국고 등)	계	
2026	지역균형	475 93.5	16 3.1	17 3.3	- -	- -	- -	- -	- -	- -	- -	508	
	일반전형	430 28.3	16 1.1	192 12.6	111 7.3	429 28.3	180 11.9	62 4.1	87 5.7	- -	10 0.7	1 0.1	1,518
	기회균형 (사회통합)	153 86.0	7 3.9	8 4.5	- -	- -	- -	3 1.7	3 1.7	4 2.2	- -	- -	178
	계	1,058 48.0	39 1.8	217 9.8	111 5.0	429 19.5	180 8.2	65 2.9	90 4.1	4 0.2	10 0.5	1 0.0	2,204
2025	지역균형	469 93.6	12 2.4	17 3.4	- -	- -	- -	3 0.6	- -	- -	- -	501	
	일반전형	439 29.2	22 1.5	184 12.2	136 9.0	372 24.8	200 13.3	51 3.4	86 5.7	1 0.1	10 0.7	2 0.1	1,503
	기회균형 (사회통합)	140 79.5	9 5.1	12 6.8	4 2.3	1 0.6	2 1.1	2 1.1	2 1.1	4 2.3	- -	- -	176
	계	1,048 48.1	43 2.0	213 9.8	140 6.4	373 17.1	202 9.3	53 2.4	91 4.2	5 0.2	10 0.5	2 0.1	2,180
2024	지역균형	458 91.4	26 5.2	17 3.4	- -	- -	- -	- -	- -	- -	- -	501	
	일반전형	419 27.9	30 2.0	226 15.1	141 9.4	329 21.9	193 12.9	61 4.1	94 6.3	- -	4 0.3	4 0.3	1,501
	기회균형 (사회통합)	133 74.3	15 8.4	12 6.7	2 1.1	4 2.2	5 2.8	3 1.7	2 1.1	3 1.7	- -	- -	179
	계	1,010 46.3	71 3.3	255 11.7	143 6.6	333 15.3	198 9.1	64 2.9	96 4.4	3 0.1	4 0.2	4 0.2	2,181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

## 5

수시모집 전형별 합격생의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수시모집 전형별 합격생 성별 현황(단위: 명/%)\*

구분	여			남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지역균형	237 46.7	240 47.9	238 47.5	271 53.3	261 52.1	263 52.5
일반전형	590 38.9	632 42.0	614 40.9	928 61.1	871 58.0	887 59.1
기회균형 (사회통합)	81 45.5	83 47.2	87 48.6	97 54.5	93 52.8	92 51.4
계	908 41.2	955 43.8	939 43.1	1,296 58.8	1,225 56.2	1,242 56.9

\* 산출된 자료는 최초 합격생 기준

## 6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의 등록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17일(수) 오후 4시까지이다.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총 두 차례에 걸쳐 총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단독] 2026서울대 수시최초 톱50 대원외/외대부 28명 '톱'.. 하나 대일외/명덕외/한영외 순

✎ 이상현 기자 | ㉠ 승인 2025.12.12 17:28

## 한민고 9명 일반고 '톱'.. '서류블라인드에 구술면접까지' 일반전형 일반고 비상

[베리타스알파=이상현 기자] 2026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 조사 결과 톱50은 올해도 4명에서 끊겼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대원외고와 외대부고다. 28명이 최초합격했다. 2개교 모두 재학생 27명, 졸업생 1명으로 동일한 실적이다. 대원외고는 지난해 톱(29명)에 이어 올해도 톱을 지켰고, 외대부고는 2022학년(33명) 이후 수시최초 실적을 다시 공개하며 정상외의 자리에 섰다. 일반 고교와 다른 무대인 예고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8개 영재학교를 제외한 결과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실적이 예년보다 좋지 않아 비공개 방침을 밝힌 고교 또한 제외했다.

대원외/외대부에 이어 하나고(20명)까지 톱3다. 지난해 대원외(29명) 하나(25명) 대일외(24명)의 톱3와 비교하면 수시최초 실적을 4년만에 공개한 외대부고가 합류하고, 대일외고가 밀려났다. 톱3에 이어 대일외/명덕외/한영외 3개교가 각 17명으로 동일하다. 서류 블라인드 도입 영향으로 외고가 강세를 펼쳐지는 모습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일외고는 24명에서 7명 감소, 한영외고는 10명에서 7명 증가, 명덕외고는 17명을 유지했다. 이어 톱13까지 특목자사의 강세가 이어지고, 14위에 한민고 9명으로 일반고 톱이다.

올해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에서 특목자사 일반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영재학교 강세 양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대 수시최초 톱100에 드는 단골 고교들도 올해 실적을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 다수 있었다. 특히 서울대 1단계 합격규모가 컸음에도 최종에서 무더기로 떨어진 고교들도 드물지 않았다. 서울대 일반전형의 구술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져 영재학교 출신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고교현장의 입장이다. 제시문 확인 면접인 지균은 큰 무리가 없으나 구술면접을 실시하는 일반의 경우 면접에서 영재학교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대정원 원복에 따른 최상위권 위축으로 영재학교 출신들이 수시로 의대를 지원하지 않고 서울대로 몰리면서 합격선 자체가 높아져 일반고가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영향도 있다.

구술면접 난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정성 강화방안 이후 서류에 더해 일반고 자사고에게 장애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면서 교육과정의 완벽한 차별화가 가능한 영재학교에 밀리는 데 더해 영재학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술면접의 난도까지 상승하면서 2014학년 서울대 학종 도입이래 최고 수준인 19.5% 합격이라는 '영재학교 대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 출제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테두리를 벗어나면 최대 사교육유발전형을 통과한 영재학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공정성 강화방안 이후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에게까지 불리한 입시지형이 형성됐는데 구술면접에서 마저 난이도를 올리면 대놓고 영재학교를 선발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선발한 영재학교 출신 다수가 N수를 통해 의대로 이탈하는 흐름인 점에서 서울대의 자충수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서류블라인드로 1차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영재학교가 2차 구술면접까지 어려워지면서 일반고 몫을 빼앗아갔다는 게 문제다. 서류블라인드는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어쩔수 없다 해도 구술면접은 출제와 면접을 진행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일반고에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 제시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 수는 고입жат대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 수시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입시 특성상, 학종 대비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 실적 기준 순위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라 서울대 이외의 선택지가 다양한 데다 의치한 열풍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베리타스알파가 서울대 실적을 꾸준히 파악하는 배경은 고교 서열화에 있지도 않다. 학종 중심의 대입 체제가 선발효과에 기댄 개인 실적보다는, 학교 교사 학생의 노력이 결집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교 선택의 잣대로 탄탄한 학종 중심 수시 체제를 갖춘 고교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2026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 조사 결과는 전국 178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실시했다. 팩스 미수신으로 인한 발송 실패, 비공개 방침을 알린 고교들을 제외하고 수합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서울대 합격자 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거나 대입 일정을 소화하면서 합격자까지 파악하기엔 불가능해 명단에 제외된 고교도 있어 일부 순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재학생 뿐 아니라 재수생도 포함된 수치로, 아직 재수생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고교는 재학생 실적만 포함했다. 수시최초 합격인원은 정원내 일반/지군과 지난해부터 정원외 기균을 모두 합한 기준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수시 최초합격 톱100실적을 공개한 이후 두 차례의 수시 추합을 포함한 합격자는 향후 정시 톱100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6수시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 최초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대원외고와 외대부고다. 2개교 모두 재학생 27명, 졸업생 1명으로 총 28명이 최초 합격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 <대원외/외대부 28명 '최다'.. 하나 대일/명덕/한영외 순>

예체능계/영재학교 제외, 2026학년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대원외고와 외대부고다. 2개교 모두 28명이 합격했다. 재학생 27명, 졸업생 1명으로 세부 실적까지 동일하다.

대원외고는 지난해에 이어 톱의 자리를 지켰다. 자사고와 일반고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도 지난해 29명과 큰 차이 없는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8개 외고 가운데서는 단연 1위다. 이과의 문과침공으로 요약되는 자연계 중심의 대입판도에도 불구하고 학종체제 하에 꺾이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다. 선발권 축소, 통합수능의 이과침공, 의대열풍까지 불리한 입시지형에도 매년 압도적 실적으로 대원의 경쟁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최근 대원외고의 수시최초 합격 실적은 2020학년 35명, 2021학년 32명, 2022학년 32명, 2023학년 28명, 2024학년 24명, 2025학년 29명, 2026학년 28명의 추이로 굳건하다.

외대부고도 28명의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를 배출하며 공동 1위다. 2022학년 33명 이후 처음 공개된 수시 최초합 실적이다.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만큼 수시에서도 전국 정상에 올랐다. 28명 가운데 최정점인 서울대 의예과가 무려 3명이 포함됐다. 약대 1명, 치대 1명, 수의대 2명까지 서울대 의약계열 합격자가 무려 7명에 달하는 실적이다. 매해 국내/해외, 수시/정시, 문/이과를 막론하고 두드러지는 진학 성과를 기록하며 고교 정상의를 지키오는 외대부고의 위력을 몸소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등록자 수는 합격자 중에서 실제 대학에 등록을 마친 인원만을 뜻한다. 대입에서 '합격'과 '등록'은 혼용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합격자 수는 수시와 정시에서의 최초합격/미등록총원합격(추가합격)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통상 등록자 수보다 다소 많게 산정된다.

3위는 하나고다. 2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서울대 의예 합격자가 2명이나 포함된다. 치의예에도 2명이 합격했다. 매년 최신 교육 트렌드에 걸맞은 교육 과정을 선제적으로 도입, 전국 고교현장에 혁신 열풍의 주역으로 통한다. 서울 내에서 독보적인 기숙사체제하의 공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한 대입실적도 초강점이다. 그 결과 최상위권의 집결지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다만 의대열풍의 영향으로 최근 서울대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상위권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의대로 노선을 틀면서 서울대 지원이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시최초 합격 실적은 2020학년 55명, 2021학년 42명, 2022학년 41명, 2023학년 42명, 2024학년 29명, 2025학년 25명, 2026학년 20명의 추이다.

대일/명덕/한영 등 서울권 3개 외고가 17명으로 공동 4위다. 명덕외 대일외는 졸업생이 1명 포함되며, 한영은 전원 재학생의 실적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일은 24명에서 7명 감소, 한영은 10명에서 7명 증가, 명덕은 17명을 유지했다.

대일외고는 대원외고와 함께 국내 최초 외고로 출발한 외고 전통강자다. 특히 서울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며 수시체제 중심의 성과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는 2020학년 26명, 2021학년 24명, 2022학년 21명, 2023학년 25명, 2024학년 14명, 2025학년 24명, 2026학년 17명의 추이다.

명덕외고 역시 서울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외고다. 꾸준한 실적으로 수시체제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평가 받는다. 서울대 수시 최초 실적은 2020학년 20명, 2021학년 24명, 2022학년 19명, 2023학년 14명, 2024학년 22명, 2025학년~2026학년 각 17명으로 20명 내외의 실적을 기록하는 대입 강자로 통한다.

한영외고는 17명 전원 재학생만으로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특생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탄탄한 학생부를 구축하고 있는 외고다. 2021학년 21명, 2022학년 14명, 2023학년 19명, 2024학년 21명의 실적을 유지하다 2025학년 10명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17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학종체제의 선발제도를 단기간에 타개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쌓은 데이터와 경쟁력을 통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 받는다.

3개 외고에 이어 민사고 경남과고 고양외고 동탄국제고 4개교가 16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순위로 보면 공동 7위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민사고는 1명, 경남과고는 4명이 감소했고, 고양외고는 1명 증가했다. 동탄국제고는 지난해 5명에서 16명으로 크게 늘었다.

민사고는 16명으로 지난해 17명과 큰 차이 없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원조'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영재 교육 기관인 만큼 영재학교의 서울대 합격 행렬에도 흔들림이 없다. 무학년 무계열 개념의 학생 선택 중심형 수업, 진로 진학 희망에 따른 개인 맞춤형 수강 신청 등 이미 여러 고교에서 도입해 온 혁신적

프로그램들이 민사고로부터 비롯된 만큼 공교육 롤모델의 명칭이 가장 어울리는 고교다. 물론 '입시를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나라 수월성 교육을 이끄는 만큼 진학 실적은 자연스레 뒤따르고 있다.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는 2020학년 19명, 2021학년 20명, 2022학년 23명, 2023학년~2024학년 각 22명, 2025학년 17명, 2026학년 16명의 추이다. 국내대입자원이 100명 남짓하다는 점, 최상위권들의 의대지원 등을 감안해도 우수한 실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경남과고도 16명이 합격했다. 당연 재학생으로만 거둔 실적이다. 서울의 세종/한성과 함께 과고 톱3,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면 톱으로 볼 수 있는 강호다. 매년 뛰어난 진학성과 명성을 뒷받침한다. 경남과고의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0학년 14명, 2021학년 15명, 2022학년 19명, 2023학년 10명, 2024학년 17명, 2025학년 20명, 2026학년 16명의 추이다. 과고 설립취지에 맞게 이공계특성화대 진학실적도 우수하다.

올해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곳 중 동탄국제고가 눈에 띈다. 지난해 5명에서 16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3년간 인문사회계열에 특화된 교과 수업/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발판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동탄국제고 관계자는 "3년간 학교 활동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과 체계적인 면접지도 커리큘럼이 아우러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동탄국제고의 경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고른 실적을 보이는 만큼 올해 역대급 서울대 실적이 기대된다. 지난해 서울대 최종 합격 12명(수시5명+정시7명)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고양외고도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15명보다 1명 늘어났다. 특히 고양외고는 경기권 외고 가운데 수시 실적이 탁월하기로 유명하다. 실제 최근 20여 년 동안의 진학 실적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매년 입증해내고 있다. 수시 최초합 실적은 2020학년 17명, 2021학년 12명, 2022학년 14명, 2023학년 10명, 2024학년~2025학년 각 15명, 2026학년 16명의 추이로 매년 10명 이상의 수시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16명 배출 4개교에 이어 11위인 충남삼성고가 15명으로 뒤를 잇는다. 지난해 14명보다 늘어났다. 전원 재학생 실적으로 의예과 2명, 약학 1명 등 의약계열이 3명에 달한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매년 수시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수시체제 강자다. 특히 2028개편을 앞두고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 개교 때부터 학생 진로별 선택 교육과정을 구축, 10년간 운영해오면서 이미 완성도 높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갖췄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광역자사고의 경쟁률 하락 국면에서도 경쟁률을 끌어올렸다. 고교학점제 기반의 선발체제를 그간 쌓아올린 수시체제로 타개해갈 수 있다고 보는 수요자들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위는 고양국제고다.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해 단단한 수시체제를 구축한 고교다. 수시최초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2020학년 9명, 2022학년 12명, 2023학년 13명, 2024학년 13명, 2025학년 17명, 2026학년 13명의 추이다. 적은 대입자원으로 일군 실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고3 재적이 평균 180명 정도로 같은 권역 내 외고보다 적은 수준이다.

13위는 서울 광역자사고인 중동고다.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의대명이 답게 서울대 의예과 1명이 포함된다. 교육특구 소재로 정시 초강세 지역이긴 하나 수시체제 역시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강남서초 8학군 고교 가운데 정시와 더불어 수시실적이 우수한 만큼 서울권 상위 남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특징이 있다.

### <톱20, 8명에서 끊겨.. 일반고 '톱' 한민고>

두 자릿 수 합격자 배출고교에 이어 9명을 배출한 곳은 한민고 북일고 안양외고 이화여고 부산국제고 5개교다. 순위로는 공동 14위다.

14위(9명)에서 일반고 최초로 한민고가 등장한다. 지난해는 일반고 톱2였으나 올해 다시 일반고 최강자 타이틀을 탈환했다. 지난해 8명에서 1명 증가한 9명이다. 특히 수시 블라인드 이후 특목고에 유리하게 형성된 수시 지형에서 일반고라는 제약을 깨고 우수한 실적을 거듭해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경기도 파주시 농어촌 자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산실로 인정 받는 배경이다. 서울대 수시최초 합격자는 2020학년 13명, 2021학년 8명, 2022학년 8명, 2023학년 12명, 2024학년 15명, 2025학년 8명, 2026학년 9명의 추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북일고 역시 9명이 합격했다. 모두 재학생 실적이며 의예과 치의예과 각 1명으로 최상위 실적도 동시에 일궜다. 지난해 10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최상위권 집결지로 의대 선호 현상이 뚜렷한 만큼 서울대보다 의대로의 지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2022학년~2023학년 각 13명, 2024학년~2025학년 각 10명, 2026학년 9명의 추이다.

경기권 외고인 안양외고도 9명의 합격자를 냈다. 지난해 11명보다는 감소했으나 인문계열 위축세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수시 최초합격자 기준 2020학년 13명, 2021학년 9명, 2022학년 9명, 2023학년 14명, 2024학년 15명, 2025학년 11명, 2026학년 9명의 추이다.

서울 광역자사고인 이화여고도 9명이다. 지난해 7명에서 9명으로 합격자를 끌어올렸다. 수시/정시, 인문/자연을 아우르는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서울권에서 여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6경쟁률에서 1.45대1을 기록하며 서울 광역자사고 14개교 가운데 역시 가장 높았다.

부산국제고도 9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3명에서 상승폭이 크다. 2022학년 4명, 2023학년 7명, 2024학년 8명, 2025학년 3명, 2026학년 9명의 추이로 최근 5년간 가장 합격자가 많았다.

9명 배출 5개교에 이어 9개교가 8명으로 공동 19위다. 올해 톱20은 8명에서 끊긴 셈이다. 9개교는 선덕고 대전대신고 포항제철고 운정고 배재고 상문고 과천외고 대전고 인천국제고다. 모두 우수한 실적을 기록 중인 지역 내 명문으로 통한다.

서울 광역자사인 배재고는 올해 8명이 합격했다. 모두 재학생 실적이다. 2020학년 7명, 2021학년 10명, 2022학년 8명, 2023학년 6명에서 2024학년 9명, 2025학년 11명, 2026학년 8명의 서울대 수시최초 실적이다. 의대 지원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서울 광역자사인 선덕고도 동일하게 8명이다. 올해 서울대 지원풀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시에서 본인이 지원한 학과, 혹은 대학보다 상향 지원이 가능해져 면접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역시 상위권 집결지답게 서울대보다 의대 선호 현상이 짙다. 올해 빅5 등 메이저 의대 실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비서울 광역인 대전대신에서도 8명이다. 탄탄한 수시체제로 통하는 고교다. 올해 서울대를 비롯 연대에 이미 10명이 합격했고, KAIST를 비롯 이공특 실적 역시 기대된다. 실제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6경쟁률을 끌어올렸다.

전국자사인 포항제철고도 8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포스코 산하인 전국자사 광양제철, 광역자사 인천포스코 가운데서도 우수한 실적으로 주목받는 고교다. 탄력있는 교육과정으로 대입실적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2025대입에서 26명의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베리타스알파 자체조사 결과 전국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고인 상문고 대전고 운정고도 8명이 합격했다. 한민고 9명에 이은 일반고 공동2위라고도 볼 수 있다. 먼저 상문고는 지난해 9명으로 일반고 톱이었으나 올해 1명 감소했다. 2025대입 의대 합격 45명으로 의대강자임을 감안하면 우수한 실적임이 실감된다.

대전고는 대전 중구 위치한 자공고다. 특히 평준화 지역에 위치해 선발효과가 없다시피하지만 매년 놀라운 실적으로 교육계의 관심을 끈다. 수시 최초 합격인원은 2020학년 7명, 2021학년 6명, 2022학년 9명, 2023학년 8명, 2024학년 13명, 2025학년 4명, 2026학년 8명의 추이다.

마찬가지로 자공고인 운정고도 상승세를 바탕으로 탄탄한 실적의 고교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서울대 수시최초 실적은 2021학년 4명, 2022학년 1명, 2023학년 3명, 2024학년 6명, 2025학년~2026학년 각 8명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기록, 수시 합격 두 자릿 수를 배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경기권 강호인 과천외고도 8명이다. 지균 없이 일반, 재학생만으로 거둔 실적이다. 2020학년 9명, 2021학년 8명, 2022학년 12명, 2023학년 11명, 2024학년 9명, 2025학년 11명, 2026학년 8명의 추이로 대부분 두자릿 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권에서 상위권 문과 인재들이 몰리는 명문으로 등극한 배경이다.

### <톱50, 4명에서 끊겨>

영재학교를 제외한 톱50은 올해도 4명에서 끊겼다. ▲공동 28위(7명) 경희고 대전외고 수원외고 영동고 청원고(충북) ▲공동31위(6명) 경기외고 김천고 세광고 세화여고 신일고 오현고 제주제일고 ▲공동36

위(5명) 김포외고 세화고 송덕고 오상고 청석고 화성고 휘문고 ▲공동42위(4명) 공주사대부고 김포고 단대부고 대기고 백영고 보인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영광고 용인홍천고 유신고 선정고 충남고 하남고 순이다.

톱50 이후 고교들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민감한 정보들을 공개해준 고교와 도움을 주신 현장 전문가들께 감사를 표한다. 추가 조사되는 현황은 추후 톱100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3명 배출고교, 경남외고(경남) 경산여고(경북) 경신고(대구) 경화여고(경기) 금호고(광주) 남녕고(제주) 덕소고(경기) 명덕고(서울) 상산고(전북) 서대전고(대전) 서울문영여고(서울) 심인고(대구) 야탑고(경기) 예일여고(서울) 유봉여고(강원) 은광여고(서울) 인천외고(인천) 인천포스코고(인천) 중대부고(서울) 중산고(서울) 진명여고(서울) 창녕옥야고(경남) 창현고(경기) 한영고(서울) 해룡고(전남) 현대청운고(울산)

▲2명 배출고교, 강서고(서울) 강원외고(강원) 고려고(광주) 남성고(전북) 능주고(전남) 대건고(대구) 대구국제고(대구) 대성여고(광주) 대한한빛고(대전) 대정고(제주) 동대부영석고(경기) 동성고(서울) 목동고(서울) 미림여고(서울) 반포고(서울) 보성고(서울) 분당대진고(경기) 서라벌고(서울) 선일여고(서울) 소하고(경기) 양정고(부산) 예산고(충남) 용남고(경남) 우석여고(경북) 원광고(전북) 정화여고(대구) 창원 북면고(경남) 청원고(서울) 총렬여고(경남) 충북과고(충북) 충주대원고(충북) 충주예성여고(충북) 충주중산고(충북) 평택고(경기) 포항동성고(경북) 풍문고(서울) 효암고(경남)

▲1명 배출고교, 강원과고(강원) 거제중앙고(경남) 건대부고(서울) 경북외고(경북) 계성고(대구) 광양제철고(전남) 광영고(서울) 논산대건고(충남) 대가대무학교(경북) 대광고(서울) 대구여고(대구) 대전둔원고(대전) 덕원고(대구) 목포홍일고(전남) 서강고(광주) 성광고(대구) 세일고(인천) 송림고(경기) 수성고(대구) 송덕여고(인천) 신봉고(경기) 양산제일고(경남) 양천고(서울) 여주제일고(경기) 영생고(경기) 영신고(대구) 영신여고(경기) 영신여고(서울) 전일고(전북) 전주고(전북) 제일고(인천) 주엽고(경기) 중앙고(서울) 천안고(충남) 청주대성고(충북) 충북고(충북) 풍동고(경기) 풍산고(경북)

### <고교별 서울대 합격실적 '유의사항은'>

고교별 서울대 합격현황을 살펴볼 때는 재학인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에 자리한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재학인원이 100명 이하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 도심 내 위치한 고교들은 많게는 400명까지 한 학년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 간 대입 실적을 비교해 볼 때는 각 고교의 선발 특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먼저 평준화 비평준화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대입 자원의 평균 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선발권이 없는 평준화 고교의 합격실적과 비평준화 고교의 합격실적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비평준화 고교가 애초에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평준화 고교는 선발권이 아예 없어 지역 내 학생들을 '랜덤'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평준화 고교가 각 시/구 내에서만 학생들을 선

발한다면, 비평준화 고교는 도 단위로 선발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외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일반고도 있다. 일부 농어촌 학교는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여타 일반고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 <서울대 합격자 왜 조사하나.. 고교 수시체제 가능할 잣대>

서울대 합격자 수 조사는 고입체제 개편 이후 학교별 경쟁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잣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시는 고교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크며, 수시는 100% 학종 체제다. 서울대 수시 규모는 전체 모집 대비 2020학년 78.5%, 2021학년 76.5%, 2022학년 69.3%, 2023학년 60%, 2024학년 62.2%, 2025학년 62%, 2026학년 62%의 추이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에 의해 수시체제 구축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다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추후 정시확대가 이뤄지더라도 선발의 절반 이상이 수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시 실적은 정시에서 활용되는 수능이라는 정량평가나 우수한 개인들의 실적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시스템이 만드는 실적이라는 점, 재학생 중심의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교 서열화' 걱정이 있지만,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는 와중에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학교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 의미를 둔다. 수능 위주의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위주의 학종이 대세가 된 추세에 발맞춰 고교현장에 학종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수요자들에게 경쟁력 강한 학교의 면면을 알리는 것이 서울대 합격자 수 조사를 시행해 온 배경이다.

11일 발표된 2026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이후 총원합격자 발표까지 수시 합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수시 최초합격자 톱100 기사를 작성한 다음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 수시 추가합격자와 정시 최초합격자를 포함한 수시+정시 톱100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다.

2026서울대 수시 합격(최초) 톱50

순위	고교명	2026			고3 학생 수 (과고는 고2)	2025	2024	2023	2022	시/도	소재	고교유형
		계	재학생	졸업생								
1	대원외고	28	27	1	255	29	24	28	32	서울	광진구	외고
	외대부고	28	27	1	363	-	-	-	33	경기	용인시	자사고(전국)
3	하나고	20	19	1	208	25	29	42	41	서울	은평구	자사고(전국)
4	명덕외고	17	16	1	237	17	22	14	19	서울	강서구	외고
	한영외고	17	17	0	235	10	21	19	14	서울	강동구	외고
	대일외고	17	16	1	234	24	14	25	21	서울	성북구	외고
7	민사고	16	16	0	147	17	22	22	23	강원	횡성군	자사고(전국)
	고양외고	16	16	0	221	15	15	10	14	경기	고양시	외고
	동탄국제고	16	16	0	190	5	10	8	9	경기	화성시	국제고
	경남과고	16	16	0	98	20	17	10	19	경남	진주시	과고
11	충남삼성고	15	15	0	365	14	13	14	11	충남	아산시	자사고(광역)
12	고양국제고	13	13	0	189	17	13	14	12	경기	고양시	국제고
13	중등고	10	10	0	362	3	6	2	6	서울	강남구	자사고(광역, 특구)
14	한민고	9	8	1	339	8	15	12	8	경기	파주시	일반고(비평준)
	안양외고	9	9	0	215	11	15	14	9	경기	안양시	외고
	북일고	9	9	0	327	10	10	13	13	충남	천안시	자사고(전국)
	부산국제고	9	9	0	157	3	8	7	4	부산	부산진구	국제고
	이화여고	9	9	0	395	-	7	5	3	서울	중구	자사고(광역)
19	선덕고	8	8	0	382	-	18	8	8	서울	도봉구	자사고(광역)
	대전대신고	8	8	0	337	7	6	3	2	대전	서구	자사고(광역)
	포항제철고	8	8	0	290	7	7	13	9	경북	포항시	자사고(전국)
	운정고	8	8	0	433	8	6	3	1	경기	파주시	자공고(비평준)
	배재고	8	8	0	417	11	9	6	8	서울	강동구	자사고(광역)
	상문고	8	8	0	414	9	6	5	10	서울	서초구	일반고(특구)
	과천외고	8	8	0	213	11	9	11	12	경기	과천시	외고
	대전고	8	8	0	306	4	13	8	9	대전	중구	일반고
	인천국제고	8	7	1	124	6	11	7	6	인천	중구	국제고
28	영등고	7	7	0	261	0	2	8	8	서울	강남구	일반고(특구)
	경희고	7	7	0	237	4	3	5	3	서울	동대문구	자사고(광역)
	수원외고	7	7	0	198	0	6	-	-	경기	수원시	외고
	청원고	7	7	0	205	7	10	3	3	충북	청주시	자공고(비평준)
	대전외고	7	7	0	218	13	8	8	8	대전	서구	외고
33	경기외고	6	6	0	189	0	11	7	13	경기	의왕시	외고
	김천고	6	6	0	229	7	9	7	13	경북	김천시	자사고(전국)
	세화여고	6	6	0	352	6	3	5	4	서울	서초구	자사고(광역, 특구)
	오현고	6	6	0	417	4	3	3	3	제주	제주시	일반고
	세광고	6	6	0	255	4	2	-	-	충북	청주시	일반고
	제주제일고	6	6	0	382	7	-	1	-	제주	제주시	일반고
	신일고	6	6	0	322	5	3	3	2	서울	강북구	자사고(광역)
	화성고	5	5	0	293	5	3	-	-	경기	화성시	일반고(비평준)
40	세화고	5	5	0	358	2	7	6	6	서울	서초구	자사고(광역, 특구)
	휘문고	5	5	0	414	1	3	5	3	서울	강남구	자사고(광역, 특구)
	송덕고	5	5	0	287	1	-	-	-	광주	광산구	일반고
	김포외고	5	5	0	193	4	-	4	6	경기	김포시	외고
	오상고	5	5	0	250	7	2	4	1	경북	구미시	일반고(비평준)
	청석고	5	5	0	263	6	3	-	-	충북	청주시	일반고
	47	공주사대부고	4	4	0	154	2	7	13	10	충남	공주시
영광고		4	3	1	133	0	2	-	-	경북	영주시	일반고(비평준)
단대부고		4	4	0	398	5	3	6	4	서울	강남구	일반고(특구)
보인고		4	4	0	362	7	6	4	7	서울	송파구	자사고(광역)
숙명여고		4	4	0	418	3	7	6	8	서울	강남구	일반고(특구)
진선여고		4	4	0	322	2	-	1	7	서울	강남구	일반고(특구)
용인흥천고		4	4	0	420	2	-	-	-	경기	용인시	일반고

충남고	4	4	0	278	2	3	3	3	대전	서구	자공고
선정고	4	4	0	386	2	2	2	4	서울	은평구	일반고
하남고	4	4	0	299	3	2	-	-	경기	하남시	일반고(비평준)
백영고	4	4	0	321	0	3	-	-	경기	안양시	일반고
대기고	4	4	0	374	5	2	2	5	제주	제주시	일반고
유신고	4	4	0	310	3	-	-	-	경기	수원시	일반고
김포고	4	4	0	373	-	-	-	-	경기	김포시	자공고(비평준)

\*2021~2026=수시 '최초' 합격인원 기준 (추가합격 제외), 예체능 고교/특성화 고교 제외 \*'-' 표시=미확인

\*자료 출처=베리타스알파 자체 조사 결과 (팩스 공문을 통한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방침을 밝힌 고교 제외)

\*고3 학생 수 자료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5.04.01 기준)

\*2026 수시 합격인원 많은 순



이상현 기자 lsh@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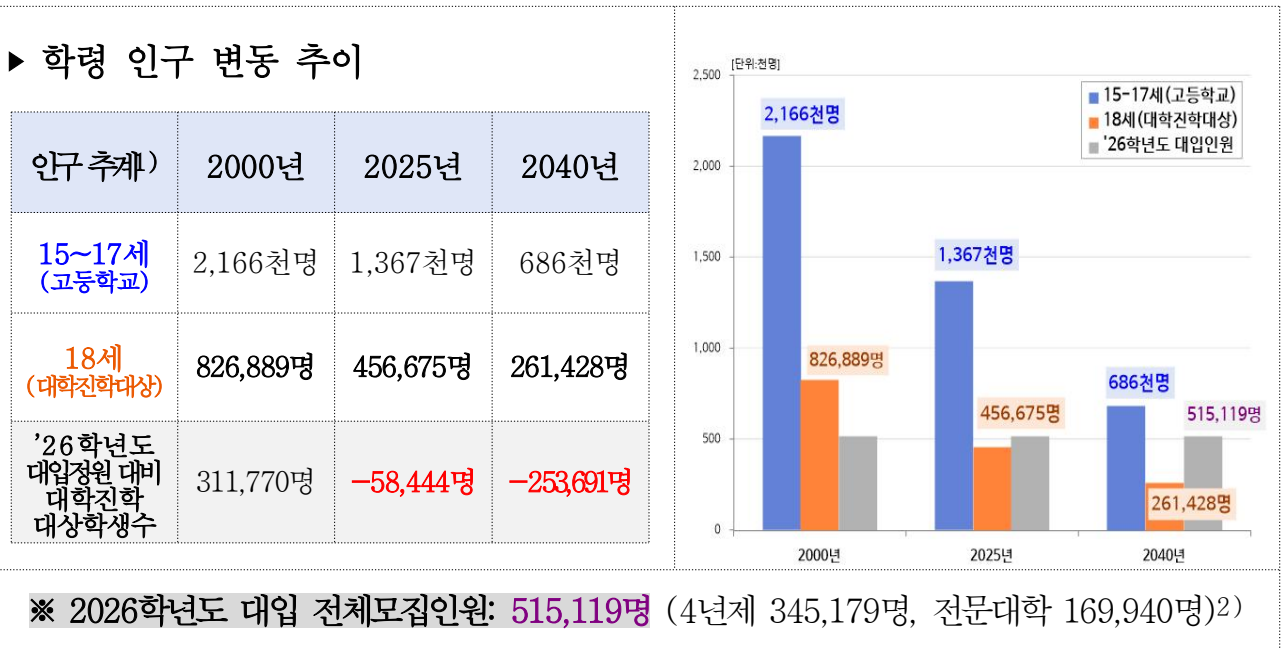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I. 배경 및 목적

- ◎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래 역량평가 요구에 대응하는 대입제도 개선 필요
- ◎ 학교 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 완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고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 ◎ 미래형 대입제도 조기 확정을 통한 안정적 교육혁신 준비 체계 구축

##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입제도의 기능 변화 필요

-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 ‘선발’ 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
  - 학령인구 감소는 ‘누가 더 뛰어난가’ 의 경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 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 전환 요구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별 정원 충원을 하락이 구조화되면서, 대입제도는 고등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원 체제로 재정비 필요



1) KOSIS,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24.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 2024.5.

## □ 새로운 인재상과 변화된 학습 성향을 반영한 평가 체제 혁신 필요성 대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는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및 소통 역량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재상 요구
  - ※ (OECD 교육 2030)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책임감 등) 강조
-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지식 중심의 5지 선다형 평가 방식에서 비판적 사고, 협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미래 역량 성장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학습자들의 디지털을 통해 학습하는 성향에 대응하여 학교 수업과 평가 역시 AI·데이터기록 기반의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살피는 교육시스템 구축

## □ 고교교육과 대입 및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계 확립 필요

- 고교학점제의 선택·성장 중심 취지와 달리 2028 대입에서는 내신 상대평가(5등급)와 ‘통합형 과목 체계’ 도입을 수반한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따른 사교육 증가 및 고교 교육의 본질 훼손 우려
-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대입의 중요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 학교 교육은 ‘깊이 있는 학습’,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 확대’ 를 지향하나 수능은 지식 중심의 5지 선다 문항으로 진행되고, 학교 교육은 다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조하나 대입은 변별만을 위한 줄세우기에 기초함
- 대학입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최종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연결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안정적 준비 체계 구축 필요

- 고교 내신의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 연계 등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과제로 이관된 상황임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3.8월),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논의
-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공론화하여 조기에 확정하고, 학교의 평가 역량 강화, 평가의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대입제도 이행 기반 마련 필요

## II.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향

- ◎ 교육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입 제도 개선
- ◎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을 위한 평가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계적 접근
- ◎ 수능의 영향 축소 및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대입 체계 구축으로 고교 교육혁신

### □ 교육 구조의 통합적·단계적 접근을 통한 개편

- 교육 내적 구조(중등·고등교육의 변화)와 외적 구조(인구구조, 경제·사회구조, 과학기술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토대로 대입제도 설계
- 고교학점제 안착 및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평가제도·전형체계·고교체제의 연동성 강화**
- 2033학년도 대입과 2040학년도 대입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역량평가·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평가·대입 체제 안착 도모

### □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평가 구현

- 단순한 입학 경쟁을 넘어, 고교-대학-사회가 연계된 성장 중심의 평가 생태계로 전환하여,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도모
- 단일 시험 중심 선발 체제에서 벗어나,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체제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설계
- 고교 교육과정-내신-학생부-대학입시 간 **정합성 회복**을 목표로 학교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교육 체계 확립

#### <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 >

공정성 확보	고교 내신 성취 검증의 표준화 및 평가 신뢰도 강화
성장 중심 평가	결과 중심 변별에서 학업 진전과 탐구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
학교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입과 연계

### Ⅲ.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 비전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

#### 목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시기	2028학년도 대입	2033학년도 대입	2040학년도 대입
적용	(18세) '25년 46만명 → '27년 45만명 적용 '25년 고1 학생	'25년 46만명 → '32년 43만명 적용 '25년 초5 학생	25년 46만명 → '39년 27만명 적용 '25년 5세
내신 평가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b>제안</b>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30년 고1~ 적용) ·서논술형 평가 확대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내신 절대평가 정착 ·서논술형 평가 안착
수능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 ·5지 선다형 문항 중심 수능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서논술형 평가 도입 확대 ·절대평가 전환 <b>※ 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b>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 체제 정착 <b>※ 수능 폐지</b>
전형 구조	·수시/정시 분리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 폐지(정시 30~40%) <b>제안</b>	·수시·정시 통합(11~12월)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전형 선발 확대 <b>제안</b>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b>※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 서논술형 평가 자율 활용</b>

#### 미래형 평가 체제 기반 조성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운영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고교 유형 단순화

고교 체제 개선을 통한 고교 서열 완화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중점학교 전환 **제안**

# 1

## 내신 평가 체제 개편

- ❖ 2033학년도 미래형 대입에 발맞춰 **고교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단계적 전환**하여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 확립
- ❖ 학습자 주도의 탐구형 수업 방식으로의 전환과 수업과 연계한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서논술형 평가 점진적 확대

###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단계적 전환

- 고교학점제를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성 견지 필요
- 고교학점제 취지 구현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33 대입 적용 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전환 필요
  - 우선 기 발표(23.12)된 **2028학년도 대입안**을 수정하여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는 즉각 폐기**하고, **2033학년도 대입(현 초5)**부터는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면 전환 추진
  - **2030학년도 고1**부터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여, 학교가 2033학년도 대입까지 절대평가 전환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 제시

대입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2028(현행)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2028(개선안)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033(안)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25~’32)** 절대평가의 내실있는 안착을 위해 **학교 간, 평가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초·중·고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 시대가 요구하는 **다면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배움의 과정과 다양성**에 가치를 둔 **역량중심 평가** 결과를 연계 활용하는 대입전형 설계
- 특히 **학습자 주도의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학년도(현 초5 학생의 고교 입학시점) 이후** 각 교과 지필평가의 **50% 이상**으로 전환
  - ※ ’27학년도 30% → ’28학년도 40% → ’29학년도 50%
- **(‘25~’32)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보급**, 모든 고교교사 **서·논술형평가 연수 강화**, **전문 채점관 양성** 등 학교 교육을 통한 **서·논술형평가 활성화** 지원

## 2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 2033학년도 대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도입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수능의 대입 영향을 축소하고, 서논술형 문항의 단계적 확대 추진

- 대입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능은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하여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교 수업의 대입 연계 강화
-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제외)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 강화
- 기초 학업 성취 확인을 위한 선다형 문항과 함께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과정,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

※ '33학년도 30% → '35학년도 40% → '37학년도 50% 이상

- 5등급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수능 전문 채점단 양성·AI 보조 채점 알고리즘 고도화표준 루브릭 개발 병행 추진
- 2031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고2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서논술형 채점 체계, 평가 신뢰도, 학생 적응도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2040학년도 대입 수능 폐지 및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고, 대입 주요 전형 자료로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함

❖ 대학은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구체적 활용 방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함

-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고,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마련
-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과정의 개편을 전제로, 대학에 따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
- 대학은 필요시 문제은행식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범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3

## 대입전형 수·정시 통합 및 개선

- ❖ 수시·정시 이원 구조를 단일 통합형 전형 체제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이후 실시
- ❖ 2033학년도부터 대입의 기본 구조를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함
- ❖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개선,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반 선발 전형 도입, 기회균형 전형 확대를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 통합 강화
-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대입 전형 요소를 단순화하여 대학입시의 공정성·예측 가능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고교-대학의 선순환 체제를 정착

### □ 수시·정시 통합 및 일정 조정

- 수시·정시 통합으로 학생·학부모의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입 전형 일정은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11월~12월) 실시**하여 학교 수업 정상화 유도
  - ※ 수능 및 대입 전형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탄력적인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시 개정 필요
-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와 연계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간 정합성과 선순환 구조 구축 기반 마련
- 대학에는 추가모집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부여해, 일정 조정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 유도

###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

- 수능의 실질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대입의 기본 구조 개편**
  - ※ 현 수능은 정시 뿐 아니라 수시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시 이월 인원예 다른 정시 규모 증가 등 대입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크게 갖고 있음

2033 전형 예시(안)	내용
학생부 플러스 수능형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최소한의 보조 요소로 반영
학생부 중심형	학생부 교과 및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중심으로 평가
미래 역량형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면접(혹은 프로젝트형 실기) 등을 종합 반영하여 평가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고교 교육-대입전형-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을 회복하여 ‘선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함

## □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 2028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고교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우수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유도
  - \*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제한
- 교육격차 완화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실현 가능한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반 선발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별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사회적 경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결한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등 대학교육의 상향 평준화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해 지역 인재의 거점 국립대 유인
  - 지역 기반의 고교-대학-지역 소재 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定住)하도록 고교에 대학 연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대입 연계 모색

## □ 대학의 전형 요소 활용의 자율성 보장

- 수도권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수능 위주 선발 비율 권고(예:서울 16개 대학 40%)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즉시 폐지하여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기반으로 하되, 수능·면접(실기) 등의 전형 요소를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조 자료로서 자율적으로 조합·운영
-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체계를 정착하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범교과 융합형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전형의 보조자료로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별 면접 및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여부 모니터링 강화

## IV. 고교교육 동반개혁 방안

### 1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 평가 신뢰도 확보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치
- ❖ 내신평가 모니터링과 컨설팅 확대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장치 마련

#### □ 평가관리 조직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혁신 추진의 전담조직으로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시도별 센터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총괄센터 구축)
  - (평가 거버넌스 재구조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평가 계획, 평가 실행, 채점, 결과 환류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 (평가 전문성 지원 체제) 센터 내 전문가 배치를 통해 절대평가(성취평가) 질 관리, 서논술형평가 확대 지원, 교원 평가 전문성 지원 등을 주도

#### □ **장기** 절대평가(성취평가) 주관성 보안을 위한 평가 공인체제 마련

- (단기) 단위학교 성취평가 운영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공통 점검기준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행
  - ※ 단위학교 내신평가 컨설팅 확대: ('25~'26)100교 → ('27) 200교 → ('28) 318교(전체)
- (중기) 서울형 평가기준 개발,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26.상~)
- (장기) 성취평가 주관성 보안을 위한 외부 공인체제(메타평가시스템\*) 구축
  - 학생별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적 판단, 정성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평정 문제를 방지하고 학교 간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체제 구축
    - ※ 메타평가시스템: 성취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객관화, 학교(평가자) 간 일관성 확보, 평가의 타당성 확보 시스템(외부 모니터링, 평가조정 등)

#### □ 단위학교 평가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평가지원단 양성 확대

- 평가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으로 학생평가지원단을 구성, 평가 개선 밀착 지원
  - ※ 영역: 성취평가/ 논술형평가/ 현장민원대응/ 탐구수업 전문가
  - ※ (~'26) 300명 → (~'27) 400명 → (~'28) 500명
- 성취평가 실행역량 강화, 서논술형평가 확대, 향후 정책 방향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집중 연수 운영

## 2

#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탐구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 ❖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을 통한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가속

### □ 초·중·고 탐구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속

- 성장역량 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체제의 혁신 추진, 서울형 탐구수업 모델 단계적 도입
-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위해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 2030학년도(현 초5 고교 입학시점) 이후 서·논술형 평가 50%이상으로 전환  
 ※ 교과별 지필 평가 기준:(’26) 25% 내외 시범 운영→(’27) 30%→(’28) 40%→(’29) 50%

### □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동력 확보

- ’25년~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해 AI 평가지원시스템(채점보조-피드백) 개발
- ’26년~ AI활용 평가 실천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학교의 평가 실행 역량 강화
- ’27년~ 전체 학교 상용화로 일상적인 학교 수업 속에서 서·논술형 평가 실행 확산

<AI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추진>

구분	1단계 (’25년)	2단계 (’26)	3단계 (’27~)
	시범 운영(66교)	시범 운영 확대(120교)	전체 학교 확산
	AI 자동 채점시스템 개발 및 AI 학습용 채점데이터 구축	AI 자동 채점시스템 고도화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속	서비스 상용화 및 시스템 고도화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운영</li> <li>· 논술형평가 연수 모듈 개발</li> <li>· 논술형평가 현장지원단 구성</li> <li>· 논술평가 가이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확대</li> <li>·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li> <li>·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li> <li>· 채점자 연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시스템 활용 전면 확대</li> <li>·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지속</li> <li>·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확대</li> <li>· 전문채점관 양성</li> </ul>

### □ 단위학교 서·논술형 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

- 교과별 서·논술형 평가 지원단 구성하고,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실습중심 연수 활성화, 출제 및 채점 컨설팅 지원, 이의제기 사례 발생 시 외부 자문 지원 등
- **장기** 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적 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 채점관 양성(’27~)

### 3 고교 유형 단순화

- ❖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일반고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로의 전환
- ❖ 미래형 대입제도의 개편을 위한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 추진

#### □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고교 체제 개선 추진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외국어 및 국제계열 교과목을 다양하게 집중 편성하는 등 특화된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짐
-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고교 유형 단순화를 통한 고교서열화 완화 필요
- 학교가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 □ 자율고·외고·국제고 중점학교 전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최초 지정·고시 당시의 학급당 모집 인원(35명) 및 학급수를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
  - ※ 자사고 학급당 모집 인원('10, '11년~) 35명 → ('28년) 30명 → ('29년) 28명 → ('30년) 26명
  - ※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학생수는 일반고 감축 비율에 맞춰 감축 운영
- 자율고·외고·국제고를 학교 유형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중점과정 운영 일반고로 전환('30년 이후)하여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중점학교 전환(안) >

고교 체제(현)			고교 체제 개편(안)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고		시행령 제76조의3	일반고 (자율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 <b>제안</b> )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		시행령 제91조
특목고 4계열	과학고	시행령 제90조	특목고 3계열	과학고	법적 근거 마련 <b>필요</b> <b>제안</b>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시행령 91조의 3,4	자율고	-	
	자율형 공립고				

## V. 추가 제언

###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 폐지

- 수능 전형의 확대 이후 고교 및 대학의 학업 중단율이 높아졌고, 수능을 통한 N수생 증가 등으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
- 정시 중심의 입시 구조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충실도 보다는 수능 점수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여, 교육 공공성과 학교 교육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킴
-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를 폐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대입 제도를 통해 학생 성장과 역량 함양 중심의 학교 교육 구현

### 대입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서·논술형 절대평가) 조기 확정 필요

- 고교 내신 및 대입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을 조기 확정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및 교육 당국이 서·논술형 절대평가 내신 및 수능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질적인 진로 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

- 중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여 고교와 연계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중1 자유학기→중 3 전환학기), 고 3학년 2학기에 진로 설계를 위한 탄력적인 진로 연계학기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 필요
- 진로·진학과 대입전형 상담, 사회 생활 안내와 적응,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하여, 3학년 2학기가 대학과 연계하여 온전하게 고교 교육과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전과목 내신 절대평가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과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대학 서열화 하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므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시행이 중요함
-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과 교육청, 교육전문가 및 시민사회, 노동계 등 범사회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

- 단편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해서 교사가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함께 적정한 교원 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붙임

## 미래형 대입제도 추진 로드맵(안)

- ❖ 고교 교육과정-내신 평가-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개혁 추진
- ❖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불안 확대 및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단계적인 “대입-고교교육 동반 정책 로드맵” 제시
- ❖ 고교교육-대학입시-대학교육 연계 및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 내신 평가 체제 개편

연도	'25. 下~	'26	'27	'28	'29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현	(수업) 서울형 탐구수업	· 서울형 탐구수업 모델 개발 및 확산('26上. 개발~) · 서울형 평가기준 개발 및 적용('26上. 개발~)			
	(평가) 서·논술형 평가	선도학교 운영	30%	40%	50%이상
② 평가 역량 강화	AI 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	시범적용 확대 (120교)	상용화(일반학교 확산)		
	평가지원단(전문가) 양성	300명	400명	500명	-
	서·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고교 교원 30%	고교 교원 50%(누적)	고교 교원 80%(누적)	고교 교원 100%(누적)
③ 절대평가 안착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속 및 컨설팅 단계적 확대 ('26년 100교→'27년 200교(누적)→'28년 318교(전체))			
	평가 공인체제 구축	* 정책연구	시범적용	적용확산	일반화

### 대입제도 개편 및 고교 유형 단순화 추진

연도	'25. 下~	'26~'31	'32	'33~'38	'39
① 대입제도 개편	<b>제안</b> ·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 폐지 · 서울 주요 대학 수시전형 개선	· AI 기반 채점 시스템 구축 · 서·논술형 문항 개발 · (31년) 모의평가	<b>2033 대입</b>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및 5단계 절대평가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편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b>2040 대입</b> · 수능 폐지 ·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제
	② 고교유형 단순화	법적 근거 마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30년, 고1 적용) 자율형고등학교,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일반고(중점학교)로 전환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도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고교 5등급제 성적 분석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이 자료는 부산 지역 81개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올해 고1 학생들의 5등급제 성적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9등급제와의 비교를 통해 고등학교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5등급제 내신 (現 고1, 81개교, 13,553명)	누적비	9등급제 내신 (現 대1, 94개교, 15,670명)
1.00	0.05%	1.00
(음영부분은 향후 3학년 1학기까지의 1.00 예상치임)	0.50%	1.22
	0.75%	1.29
	1.00%	1.38
	<b>2.07%</b>	<b>1.64</b>
<b>1.16*</b>	<b>2.85%</b>	<b>1.81</b>
1.33	5.03%	2.18
1.50	7.30%	2.48
1.66	9.97%	2.76
1.83	13.56%	3.07
<b>2.00*</b>	<b>18.59%</b>	<b>3.44</b>
2.16	21.06%	3.61
2.33	26.45%	3.94
2.50	31.87%	4.22
2.66	36.92%	4.47
2.83	43.70%	4.76
3.00	51.18%	5.08
3.16	55.22%	5.25
3.33	62.16%	5.55
3.50	68.50%	5.83
3.66	73.48%	6.05
3.83	79.42%	6.35
4.00	85.22%	6.69
4.16	87.27%	6.84
4.33	91.06%	7.14
4.50	93.51%	7.40
4.66	95.14%	7.63
4.83	96.95%	7.97
5.00	100.00%	9.00

\* 5등급제(現 고1 1학기) 내신과 9등급제(現 대1의 고3 1학기까지) 내신을 누적 비교한 것으로 학점(단위)수 반영한 내신 평균

## □ 자료 해석의 방향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5등급제 내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13,553명 중 281명으로 2.07%에 해당함. 다만, 3학년 1학기(총 5학기)까지 1.00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위 표의 5등급제는 1학년 1학기 성적만 반영된 것으로, 3학년 1학기(총 5학기)까지 전과목 1등급을 받아야 1.00에 해당함
  - 5등급제는 9등급제보다 상대평가 과목 수가 7~8과목 더 많음(부산 기준)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2, 3학년의 과목당 이수인원이 줄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음
    - \* 자연계열의 경우, 기존 과탐Ⅱ 과목이 상대평가 2과목으로 나뉘고 미적분Ⅱ, 기하 등은 과목당 이수인원이 적어 상위권 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내신 1.16(2.85%)의 경우 4학점 기준으로 매학기 2등급을 하나씩 받은 경우(3학년 1학기까지 2등급 5개)에 해당하며, 2025입시결과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요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예시>

등급 \ 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과목1	2	1	1	1	1	
과목2	1	1	2	1	1	
과목3	1	1	1	1	2	
과목4	1	2	1	1	1	
과목5	1	1	1	2	1	
과목6	1	1	1	1	1	
계	1.16등급	1.16등급	1.16등급	1.16등급	1.16등급	1.16등급 (2.85%)

- **내신 2.00(18.59%)의 경우, 2025입시결과 기준으로 부산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언론 및 사교육에서 주장하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1.00인 학생이 2~4%에 해당하여 최상위 대학 · 학과에 가기 위해 내신 1.00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높음
  - 2026대입 기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치약한수 수시(학생부교과·종합전형) 모집 추정 인원은 약 10,154명이며 2028대입 수능 응시 예상인원<sup>1)</sup>인 약 35만명 기준으로 2.9%에 해당하기에 내신 1.00을 받지 않아도 최상위 대학 · 학과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및 세부 전형 요소(서류, 면접 등)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등급만으로 최상위 대학 · 학과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1) 현재 고1 학생 수 426,130명(2024 KESS 교육통계서비스 기준)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일반고 내 조기취업 희망자, 중도탈락 및 학업중단자 등을 제외한 추정 인원임.



# 보도자료

일자 2025년 9월 29일(월)

발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전화 02-880-6974

시점 9월 29일(월)부터 보도

##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발표

서울대학교는 입학전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며, 공공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학년도에도 학교교육 중심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2028학년도 전형에서 202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8학년도에는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합니다.

둘째,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일부 지원자격을 제한합니다(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불가). 또한 고교별 추천인원을 3명으로 확대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활용하고,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1단계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 I. 2028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원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li><li>·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li><li>·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li></ul>
정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li><li>·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저소득))</li><li>· 학생부종합전형(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li></ul>

※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 폐지

## II. 전형별 전형요소 및 배점 (예술·체육계열 제외)

### □ 수시모집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1단계 성적	면접평가
지역균형전형	100점 (3배수)	70점	30점
일반전형	100점 (2배수)	50점	50점
기회균형특별전형 (사회통합)	100점 (2배수)	70점	30점

### □ 정시모집

	1단계*	2단계		
	수능	수능	교과역량평가	
일반전형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제외)	100% (3배수)	60점	40점	
일반전형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100% (3배수)	60점	20점	적성·인성면접 20점
기회균형특별전형** (농어촌·저소득)	수능	교과역량평가		
	60점	40점		
기회균형특별전형 (특수교육·북한이탈)	서류평가	면접평가		
	60점	40점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III.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전형 세부 사항, 수능 응시영역기준 및 예술·체육계열 모집단위 관련 내용 등은 2026년 4월 발표 예정인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수시모집

##### 1.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

- 1) 지원자격: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불가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 2) 전형요소 및 배점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1단계 성적	면접평가
100점 (3배수)	70점	30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2.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2) 전형요소 및 배점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1단계 성적	면접평가
100점 (2배수)	50점	50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3.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 2) 전형요소 및 배점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1단계 성적	면접평가
100점 (2배수)	70점	30점

#### 3)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정시모집

1.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전 모집단위(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제외)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전형요소 및 배점

1단계 수능*	2단계	
	수능**	교과역량평가
100% (3배수***)	60점	40점

\* 1단계 수능

- 등급활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 2단계 수능

- 백분위활용: 국어, 수학, 탐구

- 등급별 차등 감점: 영어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3)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교과역량평가

등급	A+	A	B+	B	C+	C
----	----	---	----	---	----	---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전형요소 및 배점

1단계 수능*	수능**	2단계 교과역량평가	적성·인성면접
100% (3배수***)	60점	20점	20점

- \* 1단계 수능
  - 등급활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 \*\* 2단계 수능
  - 백분위활용: 국어, 수학, 탐구
  - 등급별 차등 감점: 영어
-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3)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교과역량평가

등급	A+	A	B+	B	C+	C
----	----	---	----	---	----	---

**2.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

1) 지원자격

· 농어촌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 저소득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수능	교과역량평가
60점	40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4) 교과역량평가

등급	A+	A	B+	B	C+	C
----	----	---	----	---	----	---

3.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 특수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최근 9년 이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서류평가	면접평가
60점	40점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프로그램은 학년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초1	초2	초3	초4	초5/초5-3%	초6/초6-3%
1	책과 나	마음 수업 나다움	문화·예술	통합교과논술 국어	한국사 1 전근대 ①	세계사 1
2	학교 생활	생각 수업 학교생활	토의·토론	통합교과논술 문화·예술	한국사 2 전근대 ②	세계사 2
3	나의 감정	과학 수업 관찰력	사회·도덕	통합교과논술 과학·환경	토론 강화 1 과학·환경	과학 과학·환경
4	공동체	사회 수업 사고력	과학·환경	통합교과논술 사회·미디어	토론 강화 2 사회·인권	사회 인권·정치·경제
5	우리나라	문학 수업 공감 능력	문학 1	씨앤에이 오디세이 I	논술 강화 1 인문·철학	논어
6	오감 표현	예술 수업 창의력	문학 2	씨앤에이 오디세이 II	논술 강화 2 문화·예술	고전·명작 문학
7	세상 탐험	말하기 수업 발표력	논리	한국사	한국사 3 근대	베스트 컬렉션 1 진로탐색
8	자신감	글쓰기 수업 문장력	철학	스피치 강화	한국사 4 현대	베스트 컬렉션 2 과학
9	바른 마음	작가 수업 표현력	시사·교양	문학 1	문학 1	베스트 컬렉션 3 사회·지리
10	문학 여행	인생 수업 위인전	정치·경제	문학 2	문학 2	베스트 컬렉션 4 문학① (고전소설)
11	리더십	질문 수업 리더십	자기 계발	시사	비문학 정치·경제·법	베스트 컬렉션 5 문학② (수필·시)
12	호기심	역사 수업 통찰력	역사	논리·철학	미디어	베스트 컬렉션 6 문학③ (단편소설)

※ 5학년 9월-12월에는 초등문법(품사와 문장성분)을 추가로 학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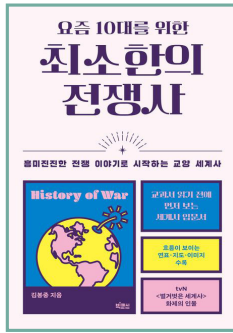
# 2026년 중등 커리큘럼 변경 사항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식 중심'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은 학생이 배운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평가 방식 역시 선다형 시험에서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가 확대됩니다. 2026년 중등 커리큘럼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수업 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 Q. 중등 커리큘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실크로드 역사 특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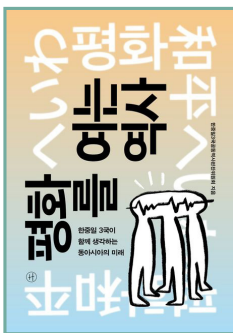
요즘 10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 서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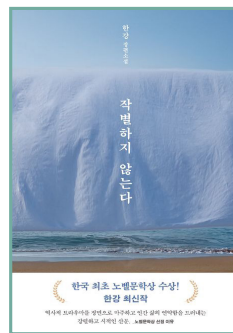
독립 기념일로 살펴보는 세계 독립의 역사



평화를 여는 역사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숫자 한국

- 2학년 세계사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1학년 12월과 2학년 7월에 세계사 워크북을 제작했습니다.
- 윤리, 철학, 경제, 역사 등 심층적인 이해와 배경지식이 필요한 과목과 연계된 도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 《교과서 소설 다보기 2》,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2》은 새로 개정된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10종에 실린 작품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 논술을 비롯한 글쓰기를 수행한 뒤 루브릭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행평가 유형의 글쓰기를 학생과 강사가 직접 채점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 2025~2026년 예비 중1 《베스트 컬렉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식 중심’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2025년 《베스트 컬렉션》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예비 중1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Q. 《베스트 컬렉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The image shows six book covers from the 'Best Collection' series. From left to right: '어휘' (Vocabulary),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토의·토론' (Discussion/Debate), '논술' (Writing), '내신 다지기' (Midterm Review), and '수행평가 다지기' (Performance Review). Each cover features a different color and layout, with some including images of food or objects.

☑ 2025~2026년 《베스트 컬렉션》은 ‘어휘’, ‘독해’, ‘토의·토론’, ‘논술’에 ‘내신 다지기’, ‘수행평가 다지기’를 더해,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되는 중학교 생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 《베스트 컬렉션》은 **작품 전체를 읽습니다**. 문학 작품의 일부만 읽어서는 그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월 선정 도서인 《프란시스코의 나비》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로, 교과서에는 이 작품의 <껍질을 벗다> 부분만 일부 실려 있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씨앤에이에서는 작품 전체를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교과서 시 다보기 1》, 《교과서 수필 다보기 1》,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1》은 새로 개정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10종에 실린 작품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 Q. 선정 도서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프란시스코의 나비》, 《순례 주택》, 《홍길동전》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며, 《페인트》, 《오즈의 의류 수거함》, 《수상한 진흙》, 《50 대 50》, 《홀홀》 등은 중학교 1학년 필독서입니다.

☑ 주요 과목은 물론, 예체능 과목에서도 수행평가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는 필수입니다. 《베스트 컬렉션》의 선정 도서와 워크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에 막힘없이 대응하는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선정 도서인 《세계 지리, 세상과 통하다 1》은 사계절 출판사와 협의하여 개정이 결정되었습니다. 2026~2027년 《베스트 컬렉션》부터는 개정된 책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2025~2026년 예비 중1 《베스트 컬렉션》 선정 도서



월	주제	주차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2025년 7월	베스트 컬렉션 1 - 진로·자기 탐색	1	페인트	이희영	창비	
		2	프란시스코의 나비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다른	
		3	처음엔 사소한 일	왕수편	뜨인돌	
		4	오즈의 의류 수거함	유영민	자음과모음	
8월	베스트 컬렉션 2 - 과학	1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가치를꿈꾸는과학교사모임	우리학교	
		2	50 대 50	S. L. 파월	라임	
		3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미래인	
		4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9월	베스트 컬렉션 3 - 문화·예술	1	똑같은 빨강은 없다 - 전반부	김경서	창비	
		2	똑같은 빨강은 없다 - 후반부	김경서	창비	
		3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북트리거	
		4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	탁민혁·김윤진	철수와영희	
10월	베스트 컬렉션 4 - 문학 1 (고전 소설)	1	토끼전 - 피주머니 배 속에 차고 계수나무에 간 달아 놓고	장재화	휴머니스트	
		<b>추석 연휴 휴강</b>				
		2	홍길동전 - 춤추는 소매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	류수열	나라말	
		3	아홉 살 인생	위기철	현복스	
11월	베스트 컬렉션 5 - 문학 2 (수필·시)	1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수필 다보기 1 - 전반부	C&A논술 연구팀	C&A에듀	
		2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수필 다보기 1 - 후반부	C&A논술 연구팀	C&A에듀	
		3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시 다보기 1 - 전반부	C&A논술 연구팀	C&A에듀	
		4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시 다보기 1 - 후반부	C&A논술 연구팀	C&A에듀	
12월	베스트 컬렉션 6 - 문학 3 (단편 소설)	1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 1부 시점과 상징 ※ 수록작 : 김유정 <동백꽃>,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황순원 <소나기>	C&A논술 연구팀	C&A에듀	
		2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 2부 갈등과 사건 ※ 수록작 : 박완서 <자전거 도둑>, 현덕 <하늘은 맑건만>, 헤르만 헤세 <공작 나방>	C&A논술 연구팀	C&A에듀	
		3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 3부 관계와 성장 ※ 수록작 : 장주식 <먹고 싶다, 수박>, 진형민 <명키 스페너>, 이송현 <오후 네 시, 달고나>	C&A논술 연구팀	C&A에듀	
		4	2022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 4부 설화의 세계 ※ 수록작 :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열두 살에 나라를 세우다>,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 <아기장수 우투리>	C&A논술 연구팀	C&A에듀	
2026년 1월	베스트 컬렉션 7 - 사회·지리	1	순례 주택	유은실	비룡소	
		2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미래인	
		3	홀홀	문경민	문학동네	
		4	세계 지리, 세상과 통하다 1 - 전반부	전국지리교사모임	사계절	
		5	세계 지리, 세상과 통하다 1 - 후반부	전국지리교사모임	사계절	
2월	베스트 컬렉션 8 - 비문학	1	2022 교육과정 반영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1 - 1부 생태·환경	C&A논술 연구팀	C&A에듀	
		2	2022 교육과정 반영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1 - 2부 언어·매체	C&A논술 연구팀	C&A에듀	
		3	2022 교육과정 반영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1 - 3부 사회·문화	C&A논술 연구팀	C&A에듀	
		4	2022 교육과정 반영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 1 - 4부 생활·건강	C&A논술 연구팀	C&A에듀	

※ 해당 커리큘럼은 예정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목 **베스트 컬렉션 7**

수업 기간 **2025. 12. 29. ~ 2026. 1. 25.**

안녕하십니까? 씨앤에이논술입니다. 이번 <베스트 컬렉션 7>에서는 '사회·지리'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계 지리를 살펴 보며 지형과 기후, 그에 따른 경제 변화, 공존과 갈등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 이달의 선정 도서

주차	구분	내용	
<b>1주차</b> 	선정 도서	<b>순례 주택</b>	글 유은실 <b>출판사</b> 비룡소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도덕 1 ③ 사회·공동체와의 관계</li> <li>• 중등 기술·가정 2 ① 가족의 관계와 이해</li> </ul>	
	학습 목표	<p>순례 주택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 보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장인물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li> <li>2. '어른'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덕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li> <li>3. 현대 사회에서 경계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li> </ol>	
<b>2주차</b> 	선정 도서	<b>아이를 빌려드립니다</b>	글 알렉스 쉬어러 <b>출판사</b> 미래인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사회 1-2 ⑫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li> </ul>	
	학습 목표	<p>불임 사회와 고령화를 담은 미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짧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살펴보고, 나이 듦의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li> <li>2.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li> <li>3.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li> </ol>	
<b>3주차</b> 	선정 도서	<b>세계 지리, 세상과 통하다 1 (처음~157쪽)</b>	글 전국 지리 교사 모임 <b>출판사</b> 사계절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사회 1-1 ① 내가 사는 세계 ④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li> <li>• 중등 사회 2-2 ⑩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⑫ 더불어 사는 세계</li> </ul>	
	학습 목표	<p>아시아의 환경과 문화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아시아의 갈등 지역을 살펴봄에 평화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형과 기후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li> <li>2.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알아보고, 지구촌이 조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li> <li>3. 아시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li> </ol>	
<b>4주차</b> 	선정 도서	<b>세계 지리, 세상과 통하다 1 (158쪽~끝)</b>	글 전국 지리 교사 모임 <b>출판사</b> 사계절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사회 1-1 ① 내가 사는 세계 ④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li> <li>• 중등 사회 2-2 ⑩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⑫ 더불어 사는 세계</li> </ul>	
	학습 목표	<p>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환경과 문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가 남태평양의 환경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li> <li>2. 천연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li> <li>3. 세계의 물 부족 문제는 현실인지, 지나친 우려인지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li> </ol>	



**제목** 교과서 소설 다보기 3 (2015 교육 과정 반영)

**수업 기간** 2026. 1. 5. ~ 2026. 2. 1.

안녕하십니까? 씨앤에이논술입니다. 중2 커리큘럼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입니다. '작품 읽기'에서 중·고등 국어 교과서 수록작을 중심으로 한 12편의 필독 단편 작품의 전문을 만나 보고, '꼼꼼히 읽기'에서 작품의 맥락을 잘 짚어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 나누기'에서 토의·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생각 펼치기'에서 다양한 주제를 논술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읽어 보기'에는 주차별 주제를 고려하여 함께 읽을 만한 소설의 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총 12편의 필독 단편을 통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 이달의 선정 도서

주차	구분	내용	
1주차 	선정 도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 - 1부 자본주의와 우리의 삶 (처음~97쪽)	글 씨앤에이논술연구팀    출판사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p>[작품 읽기] 조정래 &lt;마술의 손&gt;, 양귀자 &lt;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gt; [활동하기] '느림의 가치' [더 읽어 보기] 문순태 &lt;징소리&gt;</p> <p>조정래의 &lt;마술의 손&gt;과 양귀자의 &lt;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gt;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던 산업화 시대, 근대 문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명의 혜택에 가려진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부작용에 대해 오늘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자신의 방식으로 소신 있게 삶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p>	
2주차 	선정 도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 - 2부 시대와 가치관 (98~207쪽)	글 씨앤에이논술연구팀    출판사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p>[작품 읽기] 전광용 &lt;꺼삐딴 리&gt;, 채만식 &lt;치숙&gt; [활동하기]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 [더 읽어 보기] 유진오 &lt;김 강사와 T 교수&gt;</p> <p>전광용의 &lt;꺼삐딴 리&gt;와 채만식의 &lt;치숙&gt;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 인물들이 어떤 삶을 택하여 살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제목이 가진 상징성과 서술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마다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p>	
3주차 	선정 도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 - 3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208~333쪽)	글 씨앤에이논술연구팀    출판사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p>[작품 읽기] 현진건 &lt;할머니의 죽음&gt;, 염상섭 &lt;임종&gt; [토론하기]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더 읽어 보기] 박완서 &lt;한 말씀만 하소서&gt;</p> <p>현진건의 &lt;할머니의 죽음&gt;과 염상섭의 &lt;임종&gt;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의 태도와 이를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동서양 대표 사상가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 죽음에 대한 성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해 봅니다.</p>	
4주차 	선정 도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 - 4부 권력과 개인의 자유 (334쪽~끝)	글 씨앤에이논술연구팀    출판사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p>[작품 읽기] 이청준 &lt;건방진 신문팔이&gt;, 전상국 &lt;우상의 눈물&gt; [토론하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더 읽어 보기] 윤희길 &lt;날개 또는 수갑&gt;</p> <p>이청준의 &lt;건방진 신문팔이&gt;와 전상국의 &lt;우상의 눈물&gt;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인물의 유형을 분석해 봅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한 속성으로서 언론 지배에 대해 살피고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p>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은 선정 도서 겸용 워크북입니다. 다른 워크북과 마찬가지로 출판부 인트라넷에서 구매하셔야 하며, 신간 주문창 혹은 단행본 탭에서 '[2026]중2<교과서소설다보기3>(2015 교육 과정 반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 도서와 내용이 동일하니 작년판 도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목** 논술로 통하는 현대 소설 다보기

**수업 기간** 2026. 12. 29. ~ 2026. 2. 1.

안녕하십니까? 씨앤에이논술입니다. 고1 커리큘럼은 '논술로 통하는 현대 소설 다보기'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등 국어 및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통해 당대의 상황과 다양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문학 작품을 통해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생생한 삶을 간접 체험하고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확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이달의 선정 도서

주차	구분	내용	
<b>1주차</b> 	선정 도서	<b>금수회의록, 혈의 누</b>	<b>글</b> 안국선·이인직 <b>출판사</b>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1. <금수회의록>과 <호질>의 비교를 통해 우화(寓話)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금수회의록>에서 동물들이 비판한 인간의 문제점과 작가가 제시한 해결책을 평가할 수 있다. 3. <혈의 누>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이 작중 인물에게 미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4. <혈의 누>의 공간적 배경을 알아보고, 작가가 이와 같은 공간적 배경을 설정한 의도를 말할 수 있다.	
<b>2주차</b> 	선정 도서	<b>무정</b>	<b>글</b> 이광수 <b>출판사</b>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1. 등장인물을 통해 시대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할 수 있다. 2. 영채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관계와 이들의 결혼관을 파악하고, 거기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4. 시대적 맥락에서 '기차'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5. 작품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b>3주차</b> 	선정 도서	<b>상록수</b>	<b>글</b> 심훈 <b>출판사</b>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1. 농촌 계몽 운동의 배경과 의의를 말할 수 있다. 2. 1930년대 농촌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말할 수 있다. 3. 작품 속 애정관을 살펴보고, 영신과 동혁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 4. 당대 농촌의 계급적 모순과 농촌 계몽 운동의 한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b>4주차</b> 	선정 도서	<b>탁류</b>	<b>글</b> 채만식 <b>출판사</b>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1. 작품 배경의 공간적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다. 2.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성격을 유추하고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다. 3. <탁류>와 <태평천하>의 특징을 비교해 풍자 기법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4. 제목의 의미와 상징, 시대적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5. 철도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서술해 본다.	
<b>5주차</b> 	선정 도서	<b>태평천하</b>	<b>글</b> 채만식 <b>출판사</b> 씨앤에이에듀
	학습 목표	1. 풍자란 무엇이며,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본다. 2. 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판소리적 요소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3. 가족사 소설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본다. 4. 등장인물의 현실 인식 태도를 비교해 보고, 이를 비판해 본다. 5. 작가가 일제 치하를 '태평천하'라고 명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논술로 통하는 현대 소설 다보기》 시리즈는 선정 도서 검용 워크북입니다. 다른 워크북과 마찬가지로 출판부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야 하며, 신간 주문창 혹은 단행본 탭에서 해당 도서명을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 도서와 내용이 동일하니 작년판 도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